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보성군, 안전하고 편안한 설맞이 종합대책 추진한다

교통·물가·AI 방역 등 종합상황실 운영

보성군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각종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15일부터 4일간을 '설연휴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 물가, 연료수급, 환경, 보건, AI 방역, 재해·재난·안전, 산불 등 각 분야에 근무인력을 투입하여 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본청 7개반 56명, 12개 읍면 56명, AI 방역 근무 160명 등 총 272명이 종합상황실 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AI 차단방역을 위한 가족방역대행반 운영으로 거점소독시설·이동소독소·농가소독 등 20개 방역시설 운영 강화와 농가 집중 예찰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귀향

객 등에 대한 축산농가 출입 자제와 축산농가 및 시설 등 일제소독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전통시장, 마트,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연휴기간 중 귀성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농어촌버스 연장운행과 연휴기간 중 행복택시 등 정상운행을 관내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교통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보건소, 종합병원 등 당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상시 응급실 운영과 구급차대기체계를 갖추는 특별진료대책을

마련했으며,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당면약국 지정현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향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읍면별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며, 연휴기간 중 특별기동 청소반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민원, 투기신고 등의 신속한 대처와 쓰레기 적기 수거를 실시한다.

설 연휴 내수 진작을 위해 보성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물' 할인 특관행사를 진행하고 서울, 대전 등 대도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불우·소외계층을 방문하여 3천4백만 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 연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전을 기용할 방침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설맞이 일제 대청소 실시

명절 연휴 생활쓰레기 등 관리대책 수립추진



영광군에서는 우리 민족 대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영광군 292개리 전 마을에서 군민 약 3,500여명이 참여하여 마을 진입로, 안길, 마을회관, 버스승강장, 공한지 등을 대상으로 설맞이 '깨끗한 영광마을'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또한, 우리군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에 1구역 1담당제 정화활동 구역을 지정, 매일 깨끗한 영광마을 기 청결 운동 시 자율적으로 청소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공무원 등 약 350여명이 참여한 주요 관공지, 공원, 도로변, 해안가 등에서 청소자랑을 동원하여 약 25톤

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한파로 올해는 눈이 많이 내린 관계로 인도, 화단 등에 담배꽂초와 각종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 유관기관·사회단체, 공무원 등은 영광을 시가지를 집중적으로 담당 청소 구역별로 인도 및 화단 등에 대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또 설 연휴 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다량 발생 및 주요 도로변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설 연휴 기간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설 연휴 쓰레기 수거 대책 상황실 운영'과 비상 청소체계를 유지하고 환경정화활동 실시, 쓰레기 불법 투기 예상지역에서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연휴 기간 중 '도심지 내 생활쓰레기 적치 해소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농어촌 행정서비스 개선도 평가 안전부문 3위

신안군은 1,025개의 섬으로 이뤄져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각종 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전국 최초로 119명예구급단 "나르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 군 단위 최초로 폐쇄회로(CCTV)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안전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내 개선도 3위에 올랐다. 82개 농어촌 군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사회복지,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등 5개 분야 행정서비스 개선도를 조사한 결과 신안군은 안전부분과 문화관광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내 3위를 기록했으며, 종합순위 5

개 분야 평가에서도 23위에 오른 등 도서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19나르미 선박에 유류대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효과 '톡톡'

단체관광객 전년 대비 49% 증가...올해에도 확대 시행

고흥군은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 인센티브제가 단체관광객 유치와 함께 관광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영남권 등 전국의 58개 여행사가 9,736명의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고흥을 다녀갔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에서 신청한 증빙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숙박 및 식비가 5억 원, 입장료 1억3천 등 총 지출

액이 9억2천만 원으로 인센티브 지원액의 7배 정도의 관광소득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어난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단체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단체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지원과 함께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여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된 관광객 유치로 고흥관

광 2천만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신청절차는 여행사로 등록된 여행사가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해 관내에서 식사 또는 숙박 등 조건을 충족하면 당일 2식 5천 원, 1박 2식, 1박5천 원, 2박 이상 2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tour.gohu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장성공설운동장, '황룡의 비상' 형상화

군,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복합 체육·문화 공간으로 건립



장성군민의 10년 숙원인 장성군 공설운동장이 황룡이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지어진다. 장성군은 군민 접근성을 최대한 높여 지속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지난 8일 공설운동장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차렷 밝혔다.

보고회에서 장성군은 ▲황룡의 비상 시각화 ▲비대칭적인 디자인으로 장성군의 변화 반영 ▲입면의 분절을 통한 장성군의 다양성 표현 ▲열린 시선으로 장성군의 진보성 표현을 공설운동장의 디자인 특징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장성군은 장성군의 젓줄인 황룡강에 마을 사람들을 수호하는 황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

다는 점을 고려해 공설운동장 지붕부를 황룡이 비상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비대칭과 입면의 분절 등 최근 건축물의 세련미를 적극 반영해 공설운동장을 명실공히 장성군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은 장성군민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 접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설운동장의 내실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최상층에 황룡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북카페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설운동장을 복합 문화공간으로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함평군이 설을 앞두고 지난 5일 월어시장에 이어, 12일 함평을 함평 전통시장에서도 장보기 행사를 개

최했다. 지역상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안 군수와 공직자 300여 명은 함평 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견과류 등 제수용품 구입했다.

또 물가안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립니다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도 펼쳤다.

군은 13일 해보시장, 14일 나산시장에서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 명절마다 지역상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5일장은 함평우시장과 함께 지난 1903년 개시돼 올해로 118년을 맞이한 전통시장이다. 2일과 7일에 열리는 함평5일장은 현재 까지도 비교적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